

제주의 '바람' 을 캔버스에 담다

이종송 작가, 17일까지 역삼동 갤러리엘르서 초대전

"히말라야를 여행하면서 느낀 그 경이로움을 제주도에서도 느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 속에서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화두로 쪽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종송 교수는 사찰벽화를 활용한 흙벽화 기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등의 풍경을 그려왔던 이종송 건국대 교수는 개인전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종송 교수는 <남자의 여행> 사찰 기행집을 내기도 한 불자 작가로 차마고도 등의 자연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다. 이종송 교수는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갤러리엘르에서 개인전을 연다.

"자연 속에서 '화엄' 을 느낍니다. 온갖 만물과 인간이 얽혀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고통 함 속에 빠지면 이 심상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교수는 이번 개인전을 위해 주로 제주도에 작품활동을 이어왔다.

"제주도는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할 수 있는 친밀한 곳이었습니다. 전시 주제를 '바람' 으로 하였는데 바람이 일으키는 사물의 흔들림과 움직임 등을 그렸습니다. 큰 산의 험한 곳을 그동안 유랑자와 고행하는 이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면 제주도는 마치 포근한 선방에서 좌선에 든 느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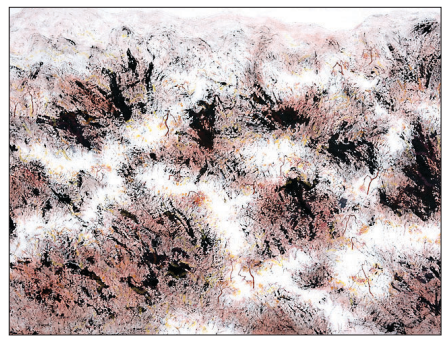
이종송 작가 작품의 특징은 사찰벽화 기법이 응용됐다는 것이다. 작가는 그동안 '움직이는 산' 등의 연작을 통해 전통 흙벽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무위사 등의 사찰 벽화 작업, 국립중앙박물관 실크로드 작품 재현 등 오랜 시간 불화 복원 작업을 해왔던 작가의 역량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벽화의 이미지 복원 연구'로 논문을 발표한 벽화복제기술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직접 활동과 석회를 가공한 소석회로 질감을 만

히말라야 이어 제주 풍경 담아

사색과 명상의 장소로 제주를 조망

흙벽화기법으로 독창적 영역 개척

사찰벽화의 현대적 해석 돋보여



이종송 작 'Mountain in motion-wind'

들어 낸다. 그리고 그 위에 천연안료를 이용해 산의 풍경과 느낌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전시전에는 이 교수의 이런 화풍이 고스란히 담긴 20여 점의 선보이다. 이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최혜정 씨와 축하공연 및 작가와의 만남도 연다.

"인간의 존재는 대자연의 앞에서 미미합니다. 흙벽에 그린 그림 또한 사실은 흙이라는 자연요소 속에 담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림을 보며 자연과의 공존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종송 작가의 작품은 자연을 노래하는 한편의 서사시이자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다.

한편, 이종송 화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와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제 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건국대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02)790-2138

노덕현 기자 noduc@ryunbul.com

신라의 불교문화, 강원도에

국립춘천박물관, 8일부터 '신라의 황금문화' 특별전

국립춘천박물관은 개관 13주년을 맞이해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신라의 황금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에 전시되었던 유물과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불상들을 함께 전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87호 금관총 출토 금관을 비롯하여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출토된 다수의 국보와 보물들이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시된다. 또한 강원지역의 영동, 영서지역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어 강원지역의 신라문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033)260-1500



2015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전 모습

노덕현 기자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검소한 발우공양의 참 의미 되살릴 때

사찰음식에 대한 한 견해

겨울을 맞아 전국 사찰들이 김장을 담그느라 분주하다. 교계 언론에 실린 한 사찰의 김장 담그는 풍경을 보면서 필자는 사찰음식 문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기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는 탁발 공양을 하였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발을 하라고 한 이유는 <보우경>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생명 있는 존재들을 다 포용하기 위해서 둘째, 차례로 평등하게 셋째, 나태심을 없애기 위해서 넷째, 만족함을 알기 위해서 다섯째, 나누어 배풀기 위해 여섯째, 탐착하지 않기 위해 일곱째, 스스로의 양을 알기 위해서 여덟째, 원만하고 선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홉째, 선근(善根)을 원만하게 심기 위해 열번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하여

수행자가 공양을 하는 까닭은 최소한의 양식을 고맙게 받아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발에 대해 설하시면서 강조한 것은 잉여(剩餘)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무소유를 실천하려는 엄중한 가르침이 담긴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뒤 점차 탁발 문화는 사라지게 되었다. 왕실과 부유층이 사원경제를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사찰을 만들고 왕실과 귀족들이 거대한 토지와 재물을 기증함으로써 불교는 탁발하지 않아도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출발한 선종(禪宗)은 이런 관습을 거부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장회해(720~814)이다. 백장은 청구를 지어 공동노동을 의무화하고 사찰토지의 경작에 솔선수범했다. 백장 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말은 수행자들에게 준엄한 죽비가 되었다.

따라서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검소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부터 사찰음식 문화가 대중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찰음식과 전통음식의 차이, 사찰음식과 채식음식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화려한 외양에 번다하기 짝이 없는 조리법을 보이고 있으며 사찰음식의 본래 의미가 퇴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스님들이 탁발하는 모습. 탁발문화는 대승불교에서 축소되었지만 공양 정신은 청규로 인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사찰음식의 최고 특징은 검박함

화려한 외양, 번다한 조리법 지양

발우공양에 담긴 가르침 계승돼야



사찰에서 불자들이 김장을 담그는 모습.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행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이 공양을 받을 때마다 읊는 오관계의 첫 구절이다.

마음의 눈 크게 바라보노라면 우리가 받는 공양물들이 육신을 지행하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것만 같다. 쌀 한 톨에도 우주가 깃들어 있을진대 혼탁한 심신에 깃든 쌀 한 톨이 어느 자리로 돌아갈지 묘연할 따름이다.

사찰음식이 지닌 특성, 이를테면, 수행음식, 자연음식, 저장음식, 발효음식 친환경 건강음식으로써의 전통은 마땅히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우공양의 정신이 잘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다 재세 당시 탁발에 대한 계율은 <사분율>에 잘 나타나 있다.

탁발한 음식은 정오가 되기 전 돌아오는 길에 다 먹어야 한다. 채 먹기 전에 정오가 되면 그날 식사는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공양 받은 음식이 너무 많은 때는 남겨두어 상관한다.

다만, 남긴 음식은 전부 버려야만 했다. 다음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다. 음식을 저장했다가 다음날 또 먹게 되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 두고두고 먹으려 하는 습성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저장된 음식물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처님 재세 당시와 달리 중국 선불교에 와서 음식의 저장을 허락한 이유는 생산불교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북아는 사계가 분방하여서 탁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준 결식할 때의 마음가짐만큼은 수행자가 지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결식하는 법을 배우라. 어떻게 해야 비구의 결식법을 배우는 것인가. 이것에 의지하여 비구들은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얻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얻지 못한 것에도 또한(마음이) 변하지 말라. 가령 밥을 얻었을 때에는 생각하면서 먹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다만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얻으려고 할 뿐, 옛 아픔을 없애려고 다시 새롭게 짓지 말며 기력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와 같은 비구의 행을 결식이라고 한다."

- <중야합경>에서 인용

유용오 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mm 금강저팔찌 B형 115,000원	10mm 반야심경 평면지 42,000원	10mm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mm 금강저팔찌 115,000원	3mm 4mm 5mm 6mm 7mm 8mm 10mm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인터넷·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10mm 만자 팔찌 130,000원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주얼드림)	